

내년부터 학생부에 학부모정보 삭제

항목 11개 중 2개 삭제...부담 여전 수상경력·자율동아리 기재 유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 학생부(학생부)에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학부모 인적사항을 적을 수 없게 된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돼온 수상 경력은 현행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돼 운영된다.

현행 총 11개 학생부 기재 항목 가운데 인적·학적사항 통합 및 학부모정보 삭제·진로희망사항만 삭제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운영의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소논문(R&E)활동의 경우 '모든 교과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88.5%)했다. 앞서 교육부가 소논문 활동을 정규수업 중에 지도할 경우에만 적을 수 있게 한 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를 거쳐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취합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00명 중 97명은 8일 투표로 통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 특기사항 등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관련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투표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이 각 쟁점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참여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합의하는 대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배우 찬성' 또는 '찬성' 의견 뿐 아니라 찬성하진 않지만 양해하는 경우도 '합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 자율동아리활동, 소논문(R&E)활동 등 쟁점에 대해 교육부가 앞서 제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보다 시민참여단이 도출한 안에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우선 시민참여단은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안중 쟁점이었던 수상경력 항목 폐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시안으로 제시한 '수상경력 항목 삭제 안'이 아닌 '현행대로 학생부에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안'에 합의했다. 투표인원의 80.4%가 '배우 찬성'하거나 '찬성' 또는 '양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창체)에 포함됐던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제시한 기재를 금지하

는 안보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민참여단의 79.4%가 '배우 찬성'이나 '찬성' 또는 '양해' 한다는 의견에 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운영의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소논문(R&E)활동의 경우 '모든 교과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88.5%)했다. 앞서 교육부가 소논문 활동을 정규수업 중에 지도할 경우에만 적을 수 있게 한 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와 관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79.4%)했다. 또 봉사활동은 '교내, 교외 실적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기재요소 명칭·양식 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교육부의 안이 아닌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반면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에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 등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창체 항목의 특기사항 글자수를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여 교사들의 기재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시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시민참여단이 학생부 기재 항목 총 11개 중 2개 항목만 삭제해 권고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은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 항목을 통합하되 부모 성명 생년월일 같은 부모 정보나 가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방안과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소논문 활동의 경우 모든 교과에 기재하지 않도록 했지만 봉사활동 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은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돼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주요 판단 근거로 삼는 학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실무책임자인 이강원 한국사회강등연구소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부 개선 시안이 총 11개 항목으로 많았던 데다 핵심쟁점 외에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하다 보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첫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한계를 인정했다.

뉴시스



뒤편 피하기 부산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12일 오후 동구 부산역 앞 횡단보도 너무 그늘에서 시민들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아차 노조 "취업사기 성역없는 수사 촉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직 노동조합 간부가 취업사기 행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사회의 뜻을 밝히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취업사기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힌 뒤 책임있는 자세로 제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12일 광주경찰청사 앞에서 기

차회견을 열고 "전직 부회장이 신분을 이용한 취업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어 "취업사기 범죄자의 도피를 지역 경찰 간부가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노조로서는 참담했다. 이 의혹 또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취업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

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취업사기가 채용비리, 입사비리로 밝혀진다면 노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사측에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윤리 "기아차 취업은 일부 노조·회사간부 등 개인적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을 들춰내 공문화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사가 협력해 도덕성을 높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태풍 마리아 중국 상륙...이재민 수십만명

제8호 태풍 마리아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12일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제8호 태풍 마리아가 지난 아침 9시 10분쯤 푸젠성 황지반도를 거쳐 중국 대륙에 상륙해 장시성 내륙지방으로 서진 중이다.

상륙 당시 태풍중심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42m로 올해들어 중국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됐다.

신춘일보 등에 따르면, 태풍상륙으로 저장성 연안지역에서는 3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푸젠성과 저장성을 오가는 고속철도의 운행도 이날 중단됐으며 항공기 이착륙도 지연되거나 취소되기도 했다.

또 푸젠성 등은 태풍 1급 및 2급 대응경보를 발령하고 공장가동 중단과 휴교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앙기상대는 제8호 태풍 마리아가 1949년 이후 7월중 푸젠성에 상륙한 태풍으로는 가장 강력했고 푸젠성에 상륙한 역대 태풍중에서도 8번째로 강했다고 밝혔다.

무너진 멕시코 피라미드 밑서 유적 발견돼

지난 해 9월 19일 지진으로 파괴된 멕시코 중부의 고대 피라미드 아래에서 이 피라미드에 덮여있던 더 오래된 유적의 건축물이 발견되었다고 고고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멕시코의 국립 고고학 역사연구소는 11일(현지시간) 이 피라미드의 보수 공사를 하던 전문가들이 이 피라미드 안에 묻혀 있던 1150~1200년에 건립된 더 작은 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정복시대 이전의 건축 양식은 피라미드식 사원 위에 새 것을 덮어 증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멕시코 시티의 바로 남쪽에 있는 쿠에르나바타 시에 있는 아즈텍 시대의 테오칸술코(Teotihuacan) 피라미드는 1200년에서 스페인 정복이 이뤄진 1521년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지난 해 지진에 의해 일부가 기울거나 내려앉았고 보수 과정에서 묻힌 사원이 드러났다.

지난 해 지진으로 멕시코에서는 식민지시대 성당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유물과 유적들이 파괴되었지만, 이곳 피라미드의 파괴는 오히려 더 오랜 유적을 고고학자들에게 선사해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폭염 속 차에 방치된 美 3세 '사망'

미국에서 폭염 속 차량에 어린 아이가 방치됐다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에 머물렀던 시간이 30여분 정도였음에도 사망한 경우가 나오면서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0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미 테네시주에서 3살짜리 소년이 폭염 속 달궈진 차 안에 갇혔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담당하던 먼로 카운티 경찰 관계자는 "할머니가 이웃집 잔디를 깔으러 집안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집에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갔다"며 "아이가 차에 머문 시간이 불과 35분"이라고 밝혔다.

당일 테네시주 기온은 30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깥 기온이 30도일 때 차량 내부 온도는 10분 만에 40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남부 해안서 또 규모 5.0 지진 발생

미얀마 남부 해안에서 12일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상수문청이 밝혔다.

기상수문청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9시11분(현지시간)께 양곤 카바이에 지진관측소 남서쪽 259km 떨어진 것을 강타했다.

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에 관한 보고와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행정 수도 네피도 인근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근래 들어 미얀마에서는 지진이 연달아 생기면서 강진의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6월17일에는 남부 바고 지구 류 남서쪽 40km 떨어진 곳을 규모 5.1 지진이 내습했다. 같은 날 류 서북서쪽 43km 떨어진 북위 18.285도, 동경 96.079도를 진앙으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다. 3월에도 수도 네피도 일원에서 규모 5.5 지진이 일어나 불탑이 무너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